

중세와 르네상스의 관계, 중세가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A4 3장)

본 글에서는 서양의 '중세와 르네상스의 관계', '중세가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중세와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고, 중세와 르네상스의 관계, 중세가 르네상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시기'를 구분했다. '고대, 중세, 근대'라는 개념은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특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말하기 위해 사용한 말들이다. 특히 중세라는 표현은 이탈리아 휴머니스트들¹⁾이 창조한 말로, 그리스·로마로 대표되는 인간중심의 '고대'와, 그 고대의 특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근대' 사이의 '중간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 과학, 예술, 문학의 꽃을 피웠던 고대와 그 특징을 이어받은 근대와는 대비되는, '신 중심'의 가치가 지배적이던 시기를 말한다.

중세는 5-15세기경의 '인간보다 신을 우선으로 여기던' 특징을 보이던 시대'를 지칭한다. 중세의 지배적 질서는 '신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신을 묘사할 때 '추상적, 관념적'이 배어나는 것이다. 추상적, 관념적인 특징은 그 당대의 회화나 건축, 조각이나 세계관에서도 드러난다. 중세의 예술은 형이상학적인 묘사로, 주로 단면의 2차원의 세계로 표현되곤 했다. 중세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지향했다. 종교적 교리에 따라,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현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적인 삶을 지향했다. 종교적·기독교적 가치 아래, 사회 내의 집단적·계급적인 질서가 유지되었다. 성직자 계급은 계급사회의 상위를 차지하며,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중세는 14-16세기에 신보다 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르네상스' 시기로 이어진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과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정신적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 중세의 지배적 가치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욕망을 참던 중세와는 달리,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던 상인계급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은 긍정되고, 욕망은 추동되었다. 그들은 내세보다는 현세에서의 삶을 욕망하며, 경제활동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금욕적인 중세시대의 질서와 충돌하던 그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통해(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희망이 공존하는) 중세시대의 질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고자 했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을 장려하는 대학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실감있고, 입체감있는 회화나 조각, 건축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 '중세'라는 표현은 1469년 교황청 도서관 사서인 지오바니 안드레아 Giovanni Andrea가 만들었다고 한다. (참고,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이처럼 후대인들은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 특정시기에 보이는 경향에 따라 '중세'와 '르네상스'라고 이름 지어 구분을 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해당 시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일 뿐, 오늘날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모두 '중세적 특징'을 가진 인간으로 함부로 보편화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그 당대의 지배적이었던 사회 분위기와 질서에 따라, 특정 시대를 '중세와 르네상스'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시대는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당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특징이 '중세적 특징'에서 '르네상스적 특징'으로 넘어가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한 사람의 오늘은, 그가 지난 세월동안 살면서 쌓아온 수만 시간의 시간들을 총합이다. 중세의 사람들이 '르네상스적'인 생각과 문화를 접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르네상스적인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아마 그것이 단기간에 쉽게 가능했다면, 인간 삶의 역사는 그 변화가 굉장히 빨라 책으로 담아내기에 벅찰 것이다. 사람이 기계처럼 버튼 한 번을 누른다하여, 평소에 가져왔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곧바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가 결코 짧았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5-15세기는 '중세', 14-16세기는 '르네상스' 시기라고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중세라는 한 시대 안에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기까지 일어난 과도기적인 시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세 때 르네상스적인 특징이 갑자기 나타나 어느 날 중세를 르네상스시대로 바꾸었다기보다, 중세의 말미에 '르네상스적인 특징을 가진 사상가들이나, 예술가들의 생각과 행위'가 나타나, 천천히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현실감 있는 생기있는 묘사로 '중세시대의 로마네스크적 추상적 회화'의 틀을 벗어났던 '조토 디 본도네'나, 성직자를 중심으로 지배계급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니라, 피렌체 사람들의 민중 언어인 '이탈리아어'로 작품을 썼던 '단테' 등이 '중세의 말미' 즉,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는 과도기'에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하여, 르네상스 안에 중세적인 특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에도 여전히 중세적인 특징은 공존하고 있다. 르네상스적 특징인 '자연주의적이고도, 공간감, 입체감'을 표현했던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 안에도, 여전히 중세의 로마네스크적 느낌은 남아있다. 이처럼 '과거의 것이 오늘에 공존해 있는' 특징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서 말했듯, 한 사람의 인간은 지난 수천, 수만 시간의 축적된 과거의 삶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 자신 안에 오랜 세월 쌓여온 과거의 것을, 단시간에 새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착오적인 것이다.

또한 고대의 재탄생이라 불리는 '르네상스의 특징'에서는 과거 고대의 것으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이 있다. 그것은 중세의 특징으로부터 가미된 것이다. 즉 르네상스·근대의 산물은 과거 중세로부터 이어져오는 '중세의 특징'의 일부를 함께 흡수하여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는 중세로부터 이어져오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및 근대는 '과거의 고대와 중세' 시기의 문화와 함께 뒤섞여 탄생한 재탄생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의 특징은 다가오는 르네상스·근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세 때의 대학, 수도원, 궁정과 같은 문화적 장소들은 개인의식의 각성을 도와 인간의 '이성과 개인성, 세속성'을 확대시켰고, 장원에서 도시로의 경제체제 변화는 시민계급의 발전을 이끌었다.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도시는 더 확대되고, 인구는 팽창하며, 이윤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세시대 때의 "공로에 따라 귀족이 될 수 있었던 기사계급의 탄생이라든가 봉건적 자연경제에서 도시적 화폐경제로의 전환, 서정적 감수성의 탄생과 고딕 자연주의의 발달, 시민계급의 해방과 근세 자본주의의 맹아²⁾" 등의 특징은 르네상스와 근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세의 말기의 '고딕 예술'은 로마네스크적 형식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르네상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딕 조각은 단면적인 로마네스크 조각과는 다르게, 벽에는 붙어있지만 입체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조각으로 표현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에 기초가 되었다. 입체적 조각을 통해 그 안의 인간과 그 스토리를 보게 되는 시발점을 연 것이다. 고딕 회화도 관념적으로 표현되던 로마네스크적 회화와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성과 인간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지배계급끼리만 사용하던 라틴어에서 벗어나, 프란치스코회를 중심으로 민중의 언어인 모국어(각 나라별 이탈리아어 등)로 설교가 이루어졌다.

'신학과 철학'을 함께 섞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부철학도 르네상스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은 모든 것을 반기신다. 모든 것은 신의 본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두고 하우저는 "이 말에서는 예술에서의 자연주의에 대한 일체의 신학적 변호가 포함되어있다³⁾"고 말한다. 이처럼 중세 때 르네상스의 특징 중 하나인 '자연주의적', '철학적'인 접근을 신학과 맞물려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다가오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자 초석이 되었다.

'중세와 르네상스'는 따로 구분된 시기라기보다, 과거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하나의 '일체'로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해와 표현을 위해 편의상,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 붙인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중세시대 안에서 중세는 말기에 르네상스를 여는 경향이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를 여는 기초토대가 닦였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질서와 형식의 사회'는, 그 표현상 '완전히 새롭고 독립된 사회'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 과거부터 오랜 세월 축적되어 쌓여온 영향이 여전히 깊게 활동하는 사회이자, 과거의 질서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수업자료
- 자크 르 고프, 『서양중세문명』, 유희수 옮김, 김음 출판사
-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2)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177

3)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백낙청 옮김, 창작과비평사, p308